

우리는 노곡동에 삽니다 II



우리는
노곡동에
삽니다
II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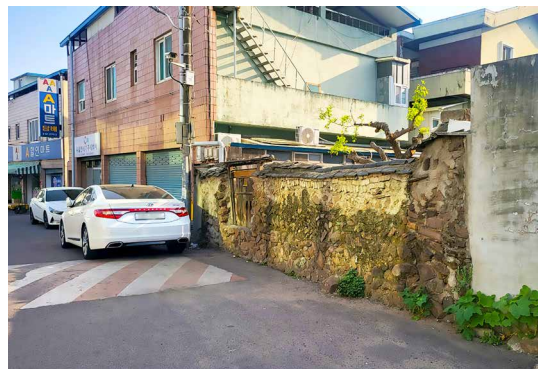
- 04 노곡동은?
- 06 리.빌리지 : 노곡
- 08 프로젝트 소개 - <리.빌리지 : 노곡>은?
- 10 프로젝트 참여 어르신
- 11 마음 들여다보기
- 13 내가 꽃 피우는 노곡동
- 16 노곡동 꽃놀이 준비
- 19 국화향에 노곡노곡
- 21 리.빌리지 : 노곡 - 성과공유회
- 24 프로젝트 참여 어르신 인터뷰
- 27 노곡동 어르신 장수사진
- 28 장수사진 참여 어르신
- 30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 36 장수사진 촬영 현장





노곡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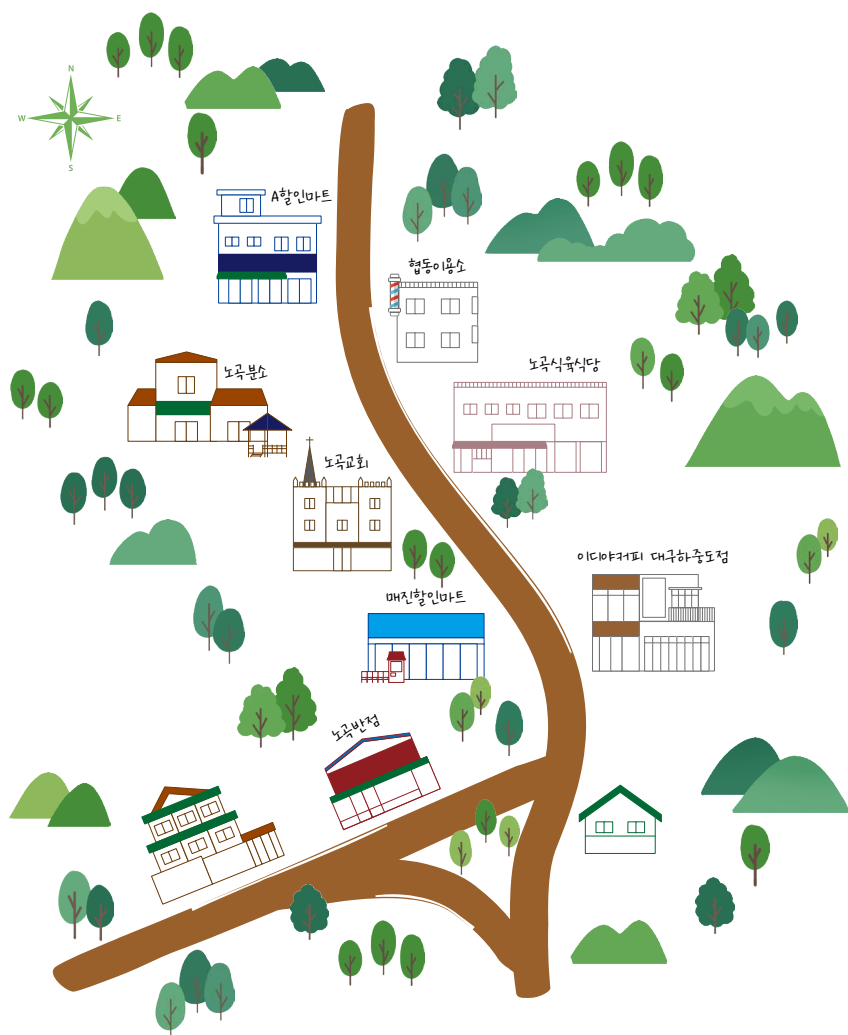
북구 노곡동은 팔달교 부근과 조야동 사이에 있는 금호강 북쪽의 강변 마을로, 대구 북구의 관광지인 '금호꽃섬(구 하중도)'과 인접해있지만, 경부고속도로에 의해 도심과 단절된 상태이다.



관문동노곡분소에 따르면 현재 노곡동은 총 413세대 8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90%가 노인 세대로 인근 지역보다 노년층 비율이 높다. 또한 금호강과 경부고속도로에 의해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황이며 마을 어르신께서 노곡동이 씨족 공동체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곳에는 이동하지 않고 오래 거주 하신 분들

이 많은 걸 통해 ‘고립’의 또 다른 의미를 알 수 있다.

노년층 비율이 높은 노곡동 특성상 타지역에 비해 문화 향유 여건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점을 반영해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제고하고 사업의 주참여 대상인 노년층의 문화적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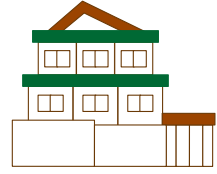






리.빌리지 :노곡

<리.빌리지 : 노곡>은?



‘꽃’이라는 소재를 통해 다채로운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주민들이 노곡동을 꽃 피울 수 있는, ‘다시, 마을로’를 실현한다.

‘마음 들여다보기, 내가 꽃 피우는 노곡동, 노곡동 꽃놀이 준비, 국화향에 노곡 노곡, 리.빌리지 : 노곡’까지 마을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익숙한 소재인 ‘꽃’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리.빌리지 : 노곡’은 북구 내 도심과 떨어진 위치로 인해 타지역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된 노곡동 주민에게 문화에 관한 관심 유도 및 문화적 활동 참여 여건을 제공하여 노곡동을 다시 돌아보고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인 ‘다시, 마을로’ 통해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었던 마을회관을 개방하여 마을주민의 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강사진과 함께하는 직접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마을의 분위기를 되살리고자 하였다.

이번 계기로 마을회관이 재개방되어 마을주민의 문화 향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다시금 인식하는 동시에 노곡동 마을주민분들이 마을회관에서 휴식과 만남이 어우러진 다양한 장르의 문화 향유를 누리고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 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프로젝트 참여 어르신

고순득 어르신 곽화자 어르신

김경자 어르신 김봉선 어르신

김우금 어르신 박길연 어르신

백귀수 어르신 백승자 어르신

손말림 어르신 송영자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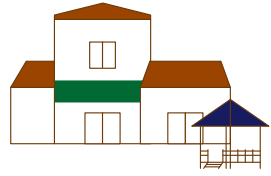
이복희 어르신 이영화 어르신

이재남 어르신 이태자 어르신



첫 번째

마음 들여다보기



‘마음 들여다보기’ 활동으로 한평생 노곡동에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졌다. ‘꽃청춘,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날마다 행복해, 웃으니까 행복한거야’ 등 다양한 글귀 중 가장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글귀 하나를 선택하여 실생활에 사용 할 수 있는 에코백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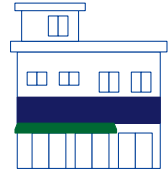
글귀 중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는 글귀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어르신들은 아마도 ‘행복’의 가치와 의미를 젊은 세대보다 더욱 가슴 깊이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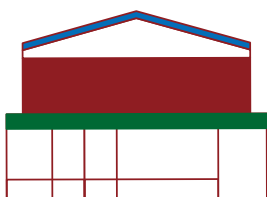
두 번째

내가 꽃 피우는 노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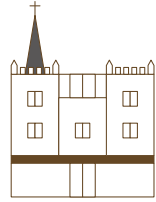
민화 채색기법으로 꽃을 칠해보고 그 주변을 자기의 생각이 표현된 다양한 것을 표현하는 꽃 민화 그림을 그리며 노곡동 어르신들의 손으로 마음의 꽃을 피워 보았다. 꽃의 색깔부터 주변에 있을 법한 곤충, 풍경까지 자기의 마음을 꽃과 또 다른 주제를 덧붙여 어르신들만의 민화 그림을 그렸다. 서툴러서, 낯설어서, 처음이라서 긴장한 모습이 엿보였지만 열심히 민화 속 자신만의 꽃에 집중하시는 모습은 어르신들의 꽃다운 젊은 시절을 연상케 하였다.





세 번째

노곡동 꽃놀이 준비



노곡동 꽃놀이 준비를 위해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화투를 이용하여 화분 머그잔을 제작하였다. 화투는 ‘꽃싸움’을 의미하지만, 이날만은 ‘꽃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꽃 같았던 청춘을 보내고’, ‘꽃을 보면 행복하고’ 등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화투속 이미지를 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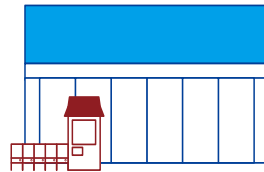
화분 머그잔을 만들기 위해 틀에 맞는 화투를 붙여보는 어르신들은 마치, 꽃놀이를 즐기시는 듯 보였으며 화분에 붙여지는 종이 화투가 과연 화분 머그잔에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셨다.





네 번째

국화향에 노곡노곡



직접 만들었던 화투 화분 머그잔에 가을이면 생각나는 국화꽃 모종을 옮겨심었다. 지금까지의 활동에서 손으로 그리거나 눈으로만 봤었던 꽃을 실제로 만지고 옮겨심으며 살아있는 꽃과 흙으로 어르신들만의 놀이를 즐기셨고, 은은한 국화 향에 주름 가득한 얼굴이 화사한 꽃처럼 변하시는 걸 눈빛을 통해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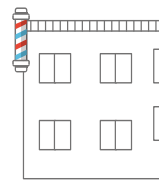
국화향에 노곡노곡한 오후 시간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여유와 휴식을 안겨드렸다.





다섯 번째

리.빌리지 : 노곡 - 성과공유회



마지막, 노곡동 어르신들이 즐겼던 활동 결과물을 노곡동 주민에게 공유하며 ‘리.빌리지 : 노곡’이 이루어졌다.

2년간 굳게 닫혀있었던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성과공유회는 마을회관의 예전 모습과 역할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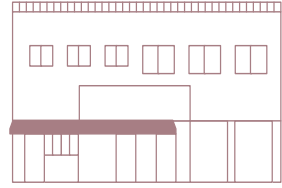






프로젝트 참여

어르신 인터뷰



곽화자 어르신

“(화분 만들고, 꽃 심은 거) 자랑해야지. 가위 가지고 자르라고 하고 붙이라고 하고 다 잘 가르쳐 주더라.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잘 되네.”

박길연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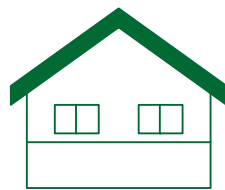
“경로당 놀러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보다 낫대요. 가르쳐 주니까 잘 만들진 못해도 재미 나고 그랬지. 다음에 또 있으면 하지.”



백승자 어르신

“만들어 보니 재미나네요. 아들하고, 딸하고, 남편도 있거든 이런 거 만들고 좋았다고 이야기해야지”

맺는 글



노곡동으로 처음 향했을 때가 7월, 노곡동 어르신분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릴 때는 무척 낯설어하셨다.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 매일 어르신에게 전화하고 일주일에 2번씩 노곡동에 가 어르신들을 만나 보았다. 낯선 기색이 역력한 어르신들



은 한 번, 두 번 갈 때마다 작은 미소를 보여주셨고,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는 활짝 웃으며 반겨주셨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어떨 때는 투정을, 어떨 때는 고마움의 인사를 건네주시고 언제부터인가 선생님들은 언제 오냐며 아쉬운 마음을 내비치셨다. 처음 어르신들을 만날 때 ‘선생님’으로 불리었던 호칭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찾아뵈는 때는 친근한 미소와 함께 ‘아가씨’로 바뀌었다.

어르신 중 프로젝트가 진행된 노곡분소 마을회관에 처음 오신 분이 대다수였다. 노곡동에 이렇게 넓고 좋은 곳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아쉽다고 하셨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폐쇄되었으니 이러한 반응은 당연할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마을회관을 노곡동 주민들의 공간, 어르신들의 문화적 소통의 공간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주민의 공간인 마을회관이 활성화되어 노곡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



The background features two large, overlapping abstract shapes. A yellow shape is in the upper left corner, and a green shape is in the lower right corner, both with smooth, curved edges.

노곡동 어르신 장수사진

장수사진 참여 어르신

정순자 어르신 고순득 어르신

권영자 어르신 김금연 어르신

김분자 어르신 김외성 어르신

김봉선 어르신 김우금 어르신

이칠연 어르신 백남순 어르신

이복희 어르신 백귀수 어르신

이춘택 어르신 곽문자 어르신

이태두 어르신 정순자 어르신

김두환 어르신 김명석 어르신

김효웅 어르신 김임호 어르신

우광성 어르신 이종일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준비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정순자 어르신

"이 동네는 공기 맑은 거
하나가 제일 좋지요."



고순득 어르신

"시집와서부터 계속 살았지."



권영자 어르신



김금연 어르신



김분자 어르신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예쁜거야."



김외성 어르신

"올해는
사진 찍을 수 있어서
참 좋으네. 생전에 이런
화장도 안 하다가 하니
우습다."



김봉선 어르신



김우금 어르신



김일순 어르신

"모처럼 사진 찍는데
저고리는 들고 와야지."



이철연 어르신

"시집와 가지고 한 번도
이사도 안 하고 살았다."



백남순 어르신



이복희 어르신



백귀수 어르신



이춘택 어르신



곽문자 어르신

"노곡동은
인심 좋고, 공기 좋다."



이태두 어르신



정순자 어르신

"하여튼 오래 살았어.
84년도에 이사 왔지.
사진 찍는다고
내 만에 화장도 한다."



김두환 어르신



김명석 어르신



김효웅 어르신

"몇 대 내려오는
내 고향 지키고 있어."



김임호 어르신

"일하다 왔는데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좋으네."



우광성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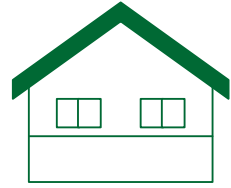
이종일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현장





맺는 글



총 23분의 어르신이 참여하신 노곡동 장수사진 촬영은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다. 처음 어르신들은 늙어서 찍는 사진이 무슨 소용이냐며 사진 촬영에 부정적인 마음을 보이셨으나 촬영이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열심히 분주히 살다 보니 사진 찍을 기회는 줄어들었고 나이가 들어 막상 화장하고 사진을 찍는다는 게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허무하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았지만, 사진을 찍기 위해 오셨을 때는 가장 예쁜 옷과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사진이 아니겠냐고, 말씀하시며 보였던 씁쓸하지만 기대에 부푼 표정에서 어르신들의 수많은 감정과 세월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노곡동**에 삽니다 Ⅱ

기 간	2022년 7월 ~ 2022년 10월
장 소	대구광역시 북구 관문동행정복지센터 노곡분소 마을회관
사 업 총 괄	이재진
기 획/운 영	김병수, 이현종, 이민희(지역문화인력)
특 강 강 사	김리아, 김필옥, 김효선
보 조 강 사	이동희
사 진 촬 영	학교 앞 사진관

발 행 인	배광식
발 행 일	2022. 11.
편 집 인	이태현
발 행 처	(재)행복북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47
전 화	053) 320-5120
홈 페이지	www.hbcf.or.kr

©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행복북구문화재단에 있으며
저작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곡동에
삽니다
II